

“뎡”에서 “츄츄”으로: 시편 114편의 전통비평적 읽기*

하경택(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성경 본문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다. 방법론을 읽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비평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 방법론에 기초한 시편 114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성경 해석의 방법론은 다양하다. 방법론을 단순화하면 ‘통시적’(diachronic) 방법론과 ‘공시적’(synchronic)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본문 전승의 관점에서 최종 본문 ‘이면’과 ‘이전’의 요소들을 추론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최종 본문을 ‘있는 그대로’로 수용하면서 그것이 내포하며 의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비평은 기본적으로 ‘통시적’ 연구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종본문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상황을 추론하여 본문의

* 이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공시적’ 방법론의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최종본문 이전에 형성되었던 ‘전통’의 의미가 현재의 본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양한 전승과 전통들의 복합체이다. ‘창조’와 ‘구원’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전통들이 모여져 있다. 따라서 성경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전통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비평은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구약 신앙의 전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시편 114편은 짧지만 단순하지 않다.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깊고 넓은 시편이다. 이 시편에 사용된 문학적 수사법도 뛰어나다.¹ 특별히 이 시편은 “출애굽” 전통에 기반한 시편이며, 출애굽 전통의 활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114편은 전통비평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시편 114편에 대한 전통비평적 읽기를 통해 방법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방법론의 적용과 그 결과가 본문 이해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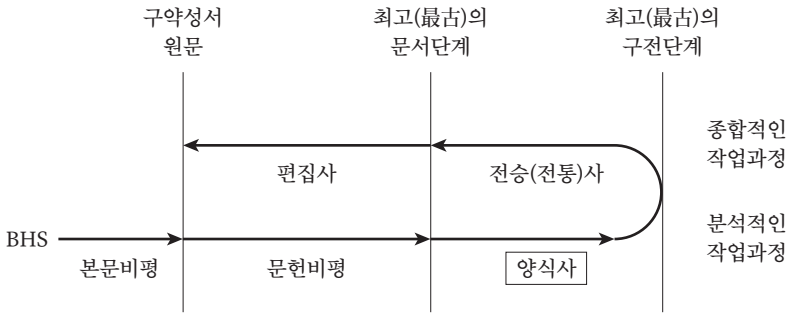
2. 전통비평 방법론 소개

1) 전통비평이란?

전통비평 방법론은 이른바 “역사비평” 방법론 중 하나로 인식된다.

1 이 점에 대해서 시편 114편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 이해: 시편 114편의 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7/2 (2025. 6), 54-57.

아래 다이어그램(diagram)은 전통비평 방법론의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²



전승비평과 전통비평 사이에는 용어의 유사성만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³ 두 방법론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헌을 전제하는 문헌비평과는 달리 “구두전승 형성에서부터 (최초의) 문자화에 이르기까지”⁴ 구

2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17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204쪽에서 재인용). 이 다이어그램은 역사비평 방법론들의 수행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 더글라스 나이트(D. A. Knight)는 이러한 역사비평 방법론의 수행을 고고학적 발굴에 비유했다. 주석가가 최종 본문을 접하면서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좀 더 작은 단위의 양식까지 탐구하는 것이 좀 더 이른 시기의 유물을 찾기 위해 지층을 파 내려가는 고고학 발굴의 활동과 유사하다는 것이다(D. A. Knight, “Tradition History”, *ABD* Vol 6 [1992], 635).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양식사’와 괄호 안의 ‘전통’은 역사비평 방법론의 이해를 위해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3 전승비평과 전통비평은 독일어로 Überlieferungskritik (Transmission Criticism)과 Traditionskritik (Tradition Criticism)으로 표기하지만, 영미권에서는 두 방법론에 대한 구분 없이 Tradition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더글라스 나이트(D. A. Knight)는 “Tradition History”라는 항목 아래 두 가지 방법론을 뭉뚱그려 설명한다(*ABD* Vol 6, 633-638). 이동수도 두 방법론에 대한 구분 없이 ‘전승비평’(Tradition Criticism) 방법론을 설명한다(이동수, 『구약주석과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179-203).

4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39.

두 전승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본문의 변화를 살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방법론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는 라틴말 traditio와 traditum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전승비평이 어떤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traditio)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는 방법론인 반면, 전통비평은 어떤 본문에 전승된 “내용적인 실상”(traditum)을 밝히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는 방법론이다.⁵

슈텍(O. H. Steck)은 전통비평 방법론의 당위성을 저자의 시대에도 적용될 정신세계의 특징에서 찾는다.⁶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존재하고 있던 “각인된 실상(實狀)들”(geprägte Sachgehalte)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진술들이 어느 정도나 자신의 정신세계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지 때로는 그러한 전통에서 얼마나 일탈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전통비평의 주요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들은 저자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확신이나 지식을 통해서 확인된다.⁷

전통비평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전통(Tradition)과 모티프(Motif)이다. 전통은 “어떤 본문에 예속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전승되고 각인된 하나의 심상(Vorstellung)”⁸이다. 그것은 그 전통을 포함하고 있는 단락이 문서로 고정되기 이전에 생성되었고, 그 내용이 그 단

5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127; 또한 참조,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4;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320.

6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124.

7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128-129.

8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5;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320.

락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⁹ 따라서 전통들은 문학적으로 서로 독립된 본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전통에는 ‘족장 전통’, ‘출애굽 전통’, ‘시내산 전통’, ‘가나안 정복 전통’, ‘다윗 전통’, ‘시온 전통’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들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 전통들은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전개되기보다는 “중심개념”(Zentralbegriff)이나 “주도개념”(Leitbegriff)을 사용하여 기술되고, 특징적인 “표현 구조”(Formulierungsstruktur)가 나타날 수 있다.¹⁰ 전통비평과 비교될 수 있는 전통사 비평은 단순히 본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들만 아니라 특정 전통이 사용된 과정의 역사를 탐구한다.¹¹ 이때 해당 전통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전통을 지지하고 전파한 전통 담지자 집단에 대한 탐구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¹²

이와는 달리 모티프는 “자유롭게 통용되고 비독립적이며 어떤 특정한 인물 집단에 구애받지 않는 각인된 심상(Vorstellung)”¹³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가장 작은 주제상의 단위”¹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9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5.

10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5;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322.

11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320.

12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4. 전통사에 관한 연구사례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E. Zenger, “Ein Beispiel exegetischer Methoden aus dem Alten Testament”, in: J. Schreiner (Hg.), *Einführung in die Methoden der biblischen Exegese* (Würzburg: Echter Verlag, 1971), 135-138; 이효림,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타국인의 제사 참여에 관한 전통사적 연구,” 『구약논단』 89 (2023), 249-285.

13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9; 또한 참조,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321. 우리말 사용에서 ‘모티프’는 ‘모티브’와 혼동되기도 하나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 사전적인 설명(Oxford English Dictionary/Cambridge Dictionary)의 설명에 따르면, 모티브(motive)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나 동기”를 의미하고, 모티프(motif)는 “문학이나 예술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제나 지배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14 M. Dreytza 외,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321.

15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과 모티프의 구별은 어떤 ‘심상’(Vorstellung)의 크기와 규모에 의

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양식과 구조를 밝히는 양식비평과 구분될 수 있다. 모티프는 특징적인 “비유적 표현”(나무, 시든 꽃, 시내, 캄캄한 골짜기, 문 등)이나 특정 주제들(우물가에서 만남, 성문 앞에서 재판함, 적대적인 형제들 등)로 판명될 수 있다.¹⁶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본문들도 하나의 모티프로써 전통비평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예, 출 34:6-7; 민 14:18; 시 103:8; 나 1:3; 온 4:2).

3. 전통비평 방법론의 적용: ‘출애굽’(Exodus) 전통

구약성경에서 “출애굽”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의 “탈출”(exodus)을 의미한다. 이것은 “출애굽”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출애굽”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그것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홍해를 건넌 후 광야의 유랑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지크프리트 헤르만(S. Herrmann)은 “출애굽”이 이집트에서의 “탈출”(exodus)부터 “입가나안”(eisodus)까지의 전과정을 일컫는 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¹⁷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출애굽 전통”을 광의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⁸ 출애굽의 중요성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피력되었다. 마틴 노트(M. Noth)는 그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증언 가운데 가장 기

해 구분될 수 있다. 전통을 응집력이 강한 ‘문치’ 또는 ‘덩어리’라고 한다면, 모티프는 ‘조각’ 또는 ‘단편’로 비유할 수 있겠다.

16 S. Kreuzer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159.

17 S. Herrmann, “Exodusmotiv I”, in: *TREX* (1982), 732.

18 이 때문에 “출애굽 전통”과 “출애굽 모티프” 사이의 용어 선택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출애굽”이라는 용어를 광의적 의미로 이해할 때 “출애굽 모티프”보다는 “출애굽 전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출애굽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고백”(Urbekentnis)이 자 오경 전승의 “생식세포”(Keimzelle)와 같으며, 오경 이야기의 “결정(結晶)적 핵심”(Kristallisationskern)이라고 말했다.¹⁹ 또한 버나드 앤더슨(B. W. Anderson)은 이스라엘의 “소명”에 근거를 제공하며 민족적 기억 속에서 근원적으로 작용하는 “뿌리 경험”(root experience)임을 강조하였다.²⁰

출애굽의 핵심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야훼”이다. 이 표현은 십계명 서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본문에 등장한다.²¹ 이렇게 다양한 본문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출애굽 전통이 그 자체로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전통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두 개의 동사, 즉 <알라> 동사와 <야차> 동사가 주도어(Leitwort)로 나타난다. 지크프리트 헤르만(S. Herrmann)은 두 동사의 활용에 관하여 두 학자(H. Lubczyk와 J. Wijngaards)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² 신명기계 문헌 이전과 초기 예언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위로 올라가게 함”(〈알라〉 [עלה] 동사의 히필형)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 반면, 오경에서 신명기와 그것과 독립된 제사장계 문헌층에서는 “빠져 나옴” 또는 “이끌어 냄”(〈야차〉 [צא] 동사의 칼형과 히필

19 M. Noth, 『오경의 전승사』, 원진희 역 (서울: 한우리, 2004), 67, 69. 노트(M. Noth)는 이 책에서 오경의 주요 주제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냄”,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인도”, “족장에 대한 약속”, “광야에서의 인도”, “시나이 계시”로 나누어 설명한다(62-86쪽).

20 B. W. Anderson, 『구약성서 탐구』, 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17), 45.

21 S. Herrmann, “Exodusmotiv I”, 733; 성결법전(레 19:36; 22:33; 25:38; 26:13); 제사장계 문헌(출 29:46); 신명기(6:12; 8:14; 13:11; 20:1); “금송아지”에 대한 설명(출 32:4, 8; 왕상 12:28); 신명기 역사서(삿 2:12; 왕상 9:9; 왕하 17:7; 수 24:17; 왕하 17:36; 예레미야서(2:6; 16:14=23:7); 그 외 다른 곳(시 50:7; 단 9:15).

22 S. Herrmann, “Exodusmotiv I”, 733. 다음 두 학자의 글을 참조하라. Hans Lubczyk, *Der Auszug Israels aus Ägypten. Seine theologische Bedeutung in prophetischer und priesterlicher Überlieferung*, 1963; J. Wijngaards, “צא והעלה A twofold Approach to the Exodus”, VT 15 (1965), 91-102.

형)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출애굽의 “목적지”를 중심에 두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집트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출애굽의 “출발지”를 중심에 두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두 동사의 차이와 함의는 지리적 의미만 아니라 정치·역사·문화·사회적인 차원을 포함한다는 쟁어(E. Zenger)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진다.²³ 그는 <알라> 동사에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상승하는” 구원의 의미(가장 이른 본문: 왕상 12:28)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훼가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산인 시온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모티프도 함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끌어 낸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차> 동사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야훼의 “왕적 통치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신명기 역사서 이전의 본문: 민 23:22; 24:8; 십계명 서문: 출 20:2; 신 5:6) 그러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적 행위”(신 26:17-19)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출애굽 전통에 반영된 하나님의 구원행동은 다양한 동사를 통해 표현된다.²⁴ 때로는 “선택”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기도 하고(קָנָה 동사: 신 7:7-11), 상품을 사고파는 일종의 “상행위”로 표현되기도 하며(קָנָה 동사: 신 7:8; 9:26; קָנָה 동사: 출 15:16; 시 74:2), 친족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기업 무르기”의 행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נָאָל 동사: 사 51:10; 63:9, 16; 시 106:10 등).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친족이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3 E. Zenger, “Exodusüberlieferung”, in: RGG⁴, 1826.

24 S. Herrmann, “Exodusmotiv I”, 733; E. Zenger, “Exodusüberlieferung”, 1826; W. H. Schmidt, 『구약신앙. 역사로 본 구약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5-116.

여기에 덧붙여 출애굽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티프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중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데, 하나는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渡河)” 모티프이며(출 14-15장; 수 3-4장),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먹게 하신 “물공급” 모티프이다(출 17:1-7; 민 20:2-13).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모티프는 일치성과 상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두 모티프는 “쪼갠다”(צקב 동사)는 점에서 중심개념이 일치한다. 하나는 바다를 쪼개고(출 14:21; 또한 ‘가르다’[גרו] 동사: 시 136:13), 다른 하나는 바위를 쪼갠다(시 78:15-16; ‘열다’[פתח] 동사: 시 105:41).²⁵ 또한 두 가지 모티프 모두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티프에 등장하는 물의 ‘심상(心像)’은 정반대이다.²⁶ 전자에서는 바다와 강이 그것을 ‘쪼갬’으로 ‘제어’하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 ‘혼돈의 물’을 상징하지만, 후자에서는 물이 반석을 ‘쪼갬’으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여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생명수’로 기능한다. 이 두 가지 모티프는 ‘제2의 출애굽’, 즉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사 43:19) 하나님을 증언한다. ‘쪼갬’의 모티프가 ‘길’과 ‘강’을 ‘내심/놓으심’(ניח 동사)의 모티프로 변형된다.²⁷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모티프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구원” 주제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25 “쪼갬”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 공급의 모티프는 제2의 출애굽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등장한다(사 35:6; 48:21).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제2의 출애굽을 묘사할 때는 “쪼갬”의 모티프가 물 공급의 주제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26 시편에 등장하는 물 은유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illiam P. Brown,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05-134.

27 시편 107편은 <심>(ניח) 동사를 활용하여 상반된 두 가지 모티프를 묘사한다(33-35절; 또한 참조, 사 35:6-7; 41:18). 도하사건은 ‘강’과 ‘샘’을 ‘광야’와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물공급 사건은 ‘광야’와 ‘마른 땅’을 ‘못’과 ‘샘물’로 바꾸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정반대의 행동이 구원사건의 의미로는 같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뒤집고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

4. 시편 114편의 전통비평적 읽기

시편 114편을 전통비평적 관점에서 읽으려 할 때, 우선 수행해야 할 작업은 시편 114편에 있는 “출애굽 전통”에 대한 확인이다.²⁸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전통”이 시인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시편 114편의 시인은 단순히 “출애굽 전통”을 수용하거나 회상하지 않는다. 전통을 수용하여 현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시대의 청중을 위한 메시지로 승화시킨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전통의 ‘수용’(reception)과 ‘현재화’(actualization)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²⁹ 시편 114편에 나타난 출애굽 전통의 요소들은 “탈출”과 “도하(渡河)”와 “물공급”의 세 가지 모티프로 분석된다. 이제부터 시편 114편 안에서 이 세 가지 모티프가 어떻게 이해되며, 이 모티프에 대한 ‘수용’과 ‘현재화’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자.

1) 시편 114편의 출애굽 전통

(1) 〈야차〉(כַּיִשׁ) 동사: 탈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편 114편에는 출애굽 전통을 드러내는

28 수잔 길링햄(S. Gillingham)은 시편집 안에 있는 “출애굽” 전통을 분석하면서 제1권과 제2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네 쌍의 시편들(시편 77편과 78편, 80편과 81편, 105편과 106편, 135편과 136편)과 시편 114편에 등장하는 출애굽 전통을 분석한다. S. Gillingham, “The Reception of the Exodus Tradition in the Psalter”, in: B. Kowalski and S. E. Docherty (ed.), *The Reception of Exodus Motifs in Jewish and Christian Literature: “Let My People Go!”* (Leiden: Brill, 2022), 36-55.

29 전통비평에서 이러한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의 과정을 ‘개작’(rework), ‘개정’(revision), ‘재해석’(reinterpretation), ‘적용’(appropriation), ‘상황화’(contextualization)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D. A. Knight, “Tradition History”, 635-636; W. S. Prinsloo, “Psalm 114: it is Yahweh who transforms the rock into a fountain”,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XVIII (1992), 172.

표현이 여럿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차>(אָצַח) 동사이다. <야차> 동사는 칼(Qal)형과 히필(Hiph.)형으로 쓰인다. “-로부터 나오다”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는 칼형으로 사용될 때도 출애굽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창 15:14; 출 11:8; 13:3-4; 19:1; 민 1:2; 9:1; 33:38 등).³⁰ 이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용될 때 출애굽과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야차> 동사의 주어가 주로 야훼로 나타나고(때때로 모세나 아론), 목적어가 이스라엘(과 동등어)이라는 점이며, “이집트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출발지가 명시된다.³¹ 이것은 이 동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으며, 출애굽의 의미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변하는 “해방과 자유”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³²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야차> 동사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메타포로서 기능한다.³³ 1절에 <야차> 동사가 사용되었다. 전치사 <베>(בְּ)와 함께 칼(Qal)형의 부정사 연계형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동사의 주체가 ‘이스라엘’이며 ‘이집트로부터’라는 부가어가 나타난다.

30 H. D. Preuß, “אָצַח”, *TbWAT* III, 804-805.

31 J. Wijinaards, “אָצַח and הֵצִיא A twofold Approach to the Exodus”, 91; H. D. Preuß, “אָצַח”, *TbWAT* III, 810.

32 다음과 같은 사법 본문에서는 <야차> 동사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출 21:2-11; 레 25:28, 30, 31; 신 15:16 등). H. D. Preuß, “אָצַח”, *TbWAT* III, 798.

33 베이나라르즈(J. Wijinaards, “A twofold Approach to the Exodus”, 94)는 <야차> 동사의 히필형이 의미하는 바가 홍해에서의 구원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 외 이집트에서 수행된 하나님의 이적적인 사건들은 후에 확장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이 견해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H. D. Preuß, “אָצַח”, *TbWAT* III, 814.

1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u>나오</u> 고, 야곱의 집이 <u>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u> (나올 때),	בְּצֵאת יִשְׂרָאֵל מִמִּצְרַיִם בֵּית יַעֲקֹב מֵעַם לְעוֹז:
----	--	--

전반절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이, 후반절에서 “이집트”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대응을 이룬다. ‘나올 때’라는 부사구가 전반절에만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중심축 유형”(pivot pattern)으로서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³⁴ 이것은 “출애굽 전통”의 분명한 증거이다. 이 진술은 말 그대로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애굽의 출발지가 어디인가를 명시하고 있다.

(2) 도망과 물러남: 도하사건

3절에는 도하사건의 배경이 되는 바다와 요단이 등장한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이 뒤로 물러선다.	הַיָּם רָאָה וַיָּנֹס הַיַּרְדֵּן יָסָב לְאַחֲוֹר:
----	-------------------------------	---

전반절과 후반절이 여러 면에서 대조된다. 먼저 전반절에는 두 개의 동사(‘보다’와 ‘도망하다’)가 사용된 반면, 후반절에서는 한 개의 동사(‘물러나다’)가 사용되었다. 또한 전반절에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반면, 후반절에는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다. 동사의 개수가 다른 것은 ‘등가적인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한 결과라 할 수 있고,³⁵ 후반절의 미완료형 사용은 요단의 물러섬이 과거의 일회적인

34 ‘중심축 유형’(pivot pattern) 현상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가리트 문헌의 평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체적-통사론적’ 현상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Shamir Jona, “성경의 평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서 중심축 유형”, 「구약논단」 40 (2011), 166-184.

35 U. F. W. Bauer, “Eine literarische Analyse von Psalm CXIV”, 297쪽 각주 53번.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한 조치라 여겨진다.³⁶ 여기에서 ‘바다’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를 말하고,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 건너야 했던 요단강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사건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나 출애굽 전통에서 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행동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다.³⁷ 하나는 ‘출애굽’(exodus)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입가나안’(eisodus)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6경신학”의 ‘압축판’인 셈이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홍해와 요단강 도하사건이 은유법, 즉 의인화를 통해 표현된다는 점이다.³⁸ 3절에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이 ‘뒤로 물러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건의 의미와 파급력을 극대화시킨다. 바다와 요단이 단순히 구원사건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일원’임을 일깨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건에는 적대세력과 지지세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구원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인화 이면에 고대 중동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혼돈과의 투쟁” 모티프가 자리하고 있다는 고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³⁹ 비너(S. Wiener)는 출애굽 전통에서 바다의 “의인화”가

36 G-K §107: 주홍-무라우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개정본), 김정우 옮김 (서울: 기혼, 2022), 479-482 (§113c-h).

37 돕스-알숍(F. W. Dobbs-Allsopp)은 이 두 사건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시간이나 논리상의 순서의 이유가 아니라 유사한 반응에 대한 연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치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F. W. Dobbs-Allsopp, *On Biblical Poe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00.

38 시편 114편에 나타난 의인화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하경택,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 이해: 시편 114편의 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54-57.

39 폰 라트(G. von Rad)는 시편의 언어가 개별상황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

갖는 의미를 밝히며, 시편 89편의 신화적 이미지 사용(10절)과 관련하여 적대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한다.⁴⁰

(3) 바위를 연못으로: 물공급

‘물공급’ 모티프는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서 등장한다. 이때 하나님은 분사구문의 형식으로 소개된다.

8절	그는 바위를 연못으로 바꾸시는 분, 차돌 바위를 그의 물샘으로 (바꾸시는 분).	הַתְּפִי הַצֹּר אֱנִים-מַיִם הַלְמִישׁ לְמַעֲיֵנוּ-מַיִם:
----	---	--

이것은 출애굽 전통에 있는 ‘물 공급’의 모티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물공급 사건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바위/반석”(צוּר)이라는 표현(참조, 출 17:6; 민 20:11)이 등장한다. 또한 출애굽의 물공급 사건을 묘사하는 신명기 본문(신 8:15)에 등장하는 <할라미쉬>(הַלְמִישׁ)라는 낱말도 사용되었다.⁴¹ 이에 반해 8절에는 출애굽 전통에서 ‘물공급’ 모티프의 핵심어인 “쪼갠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물 공급’의 모티프가 “반석을 쪼갬”이 아니라 “바위”와 “차돌 바위”를 “연못”과 “물샘”으로 “바꾸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출애굽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의 예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라).

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무시간적인 원거리 혹은 근거리에서 관찰되는 신화적인 사건과도 같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Theologie I, 59).

40 S. Wiener, “God vs the Sea: Lessons of Psalms and the Midrash”, *Jewish Bible Quarterly* 43/1 (2015), 22-28.

41 이 낱말이 개역개정역에서는 ‘차돌’로 번역되었으나, 필자는 전반절의 ‘바위’와 운율을 맞추기 위해 ‘차돌 바위’로 번역하였다.

2) 출애굽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

시편 114편에는 위에서 확인된 “출애굽 전통”이 후대의 상황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출애굽의 결과: 성소와 영토

시편 114편에서 1절과 2절의 관계는 상황절과 귀결절의 관계이다. 따라서 1절이 출애굽의 시작점을 서술한다면, 2절은 출애굽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 전통이 폭넓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착’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출애굽 전통의 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응어로서 등장하고, ‘성소’와 ‘영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출애굽 전통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 사건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애굽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라 말할 수 있다.

2절	<p>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p>	<p>הִיְתָה יְהוּדָה לְקָדְשֵׁי יִשְׂרָאֵל מִמְשָׁלוֹתָיו:</p>
----	--	---

2절의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행법 분석이 중요하고 유용하다. 2절은 1절에서처럼 두 콜론(colon) 사이의 대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응되며, 그의 ‘성소’와 그의 ‘영토’가 대구

42 푸아드(C. Fuad)는 시편 114편이 과거의 출애굽 전통을 새로운 상황에 있는 독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준다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편 114편의 재구성 전략을 “병렬과 순차 구조”(paratactic and sequential structure)라는 말로 표현한다. Chelcent Fuad, “Exodus Reimagined: Psalm 114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Exodus Tradition,”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6/2 (Oct 2022), 234.

를 이룬다. 이때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하야>(היה) 동사가 완료형으로 전반절에 한 번 등장한다. 이것은 “중심축 유형”(pivot pattern)”의 사례로서 한 구절(verse) 내에서 일종의 ‘돌쩌귀’처럼 한 번 사용으로 대응절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모든 것이 평행법의 전형적인 요소들이다. 그런데 관건(關鍵)은 전반절과 후반절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반절과 후반절의 관계를 ‘동의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대조적’ 혹은 ‘반의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우선 전반절과 후반절의 관계를 동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2절의 진술은 최소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절과 후반절의 관계를 대조적 또는 반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 이해된다.⁴³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2절의 진술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으로 존재했던 분열왕국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럴 경우 2절은 출애굽의 결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⁴

하지만 2절은 8절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제2의 출애굽’ 이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4편은

43 크라우스(H.-J. Kraus, *Psalmen 60-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9], 957)는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을 포로기 이전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Weiser (1965:709), Dahood (1970:134), Sabourin (1974:189), Scharbert (1981:404), W. S. Prinsloo, “Psalm 114: it is Yahweh who transforms the rock into a fountain”, 171.

44 자이볼트(K. Seybold, *Die Psalmen*, Tübingen: J. C. B. Mohr, 1996, 448이하)는 2절을 후대의 절가로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성소의 장소이고 북이스라엘은 통치의 장소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왕정기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성전기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⁴⁵ 그러할 경우 2절의 평행법은 1절과 마찬가지로 ‘동의적’으로 이해된다.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성소’(<코데쉬>, **קֹדֶשׁ**)와 ‘영토’(<멜셀로트>, **מְסֻלָּה**)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성소’는 본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처 시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토’는 ‘다스리다’는 의미의 <마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어떤 사람의 통치권을 가리키거나 그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주하시는 ‘성소’일 뿐만 아니라 두 곳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진술로 이해된다.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사건이 어떠한 결말에 이르러야 할지를 보여주는 진술이다. 출애굽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순히 나라나 지역 명칭이 아니라 그 나라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종의 ‘의인화’(personification) 수사법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야훼의 “성소”와 그의 “영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이것은 과거사건에 대한 단순한 서술로 끝나지 않는다. 시편 114편의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

45 U. F. W. Bauer, "Eine literarische Analyse von Psalm CXIV", 295쪽 각주 42번.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을 포로기 이후로 본다. 예컨대, Kissane (1954:204), Van der Ploeg (1974:270), Lemche (1985:353), Spiekermann (1989:156). W. S. Prinsloo, "Psalm 114: it is Yahweh who transforms the rock into a fountain", 171.

46 이것은 ‘성소/성전’에 대한 영적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점에 대해서 다음 논문 참조하라. 서재덕, “성전과 인간 - 시편의 성전신학”, 『구약논단』 79 (2021), 114-120.

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야훼의 “성소”와 “영토”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스라엘 구원의 ‘뿌리 경험’을 담고 있는 출애굽 전통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대 청중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주체성을 일깨우는 진술로 ‘현재화’한다.

(2) “도망”에서 “뛰놀”으로

3절과 대조적으로 4절에서는 산들과 언덕들이 등장한다. 4절에 등장하는 산과 언덕들은 3절의 바다와 요단처럼 의인화된다.

4절	산들은 <u>숫양들처럼</u> 뛰놀았고, 언덕들이 <u>어린 양들처럼</u> (뛰놀았)다).	הַהָרִים רָקְדוּ כְאֵילִים וְנִבְעוֹת כְּבָנִי-צֹאן׃
----	--	---

여기에서 “산들”과 “언덕들”의 행동이 각각 “수양들”과 “어린 양들”의 행동으로 비유된다. 그것들은 “뛰놀았다”(רָקְדוּ). <라카드>(רָקַד) 동사는 다윗이 법궤 앞에서 보인 행동처럼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다(참조, 대상 15:29; 또한 삼하 6:14, 16, 21).⁴⁷ 이것은 시편 114편의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3절에서 묘사된 바다와 요단이 보여준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전통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본래의 “출애굽 전통”에는 들어있지 않는 모티프이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고 자연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모티프는 “제2의 출애굽”

47 HAL, 1201.

을 묘사할 때 나타난다. 예컨대, 이사야 55장 12절에는 야훼의 구원행동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산과 언덕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⁴⁸ 이사야 35장 1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한다(참조, 사 51:3). 이러한 산과 언덕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바다나 요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상들이다. 그것들은 제어하고 제거해야 할 하나님의 적대세력이 아니다.⁴⁹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협력자들이며,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지세력이다.⁵⁰

“도망”에서 “뛰놀”으로 바뀌는 모티프의 변화에서 출애굽 전승의 ‘수용’과 ‘현재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모티프 변화를 통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제2의 출애굽”이 단순히 “출애굽”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임을 보여준다. 전통을 활용하되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과거의 구원사건과 연관성을 갖게 하면서도 변화된 상황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임을 보여준다. “제2의 출애굽”의 상황에서 보여야 할 피조물의 반응은 “도망”이 아니라 “뛰놀”, 즉 “춤추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춤추는 것”은 과거 미리암과 여인들이 보여준 행동이다(출 15:20; 또한 삿 11:34). 여기에서 산과 언덕들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보여준 행동을 대신한다.

이러한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의 의미는 5-6절의 질문을 통해서 확

48 E. Zenger,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Verlag, 2008), 269.

49 바다의 파도는 다스림과 제어의 대상이며 이와는 달리 산(다불과 헤르몬)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시편 89편 9-12절을 보라.

50 이러한 산과 언덕들을 보여주는 본문이 시편 29편이다. 여기에는 야훼의 소리에 반응하는 산과 나무에 대한 묘사가 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시 29:6)고 고백한다.

인할 수 있다. 제3연(5-6절)은 3-4절 낱말들이 거의 문자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 다만 문장의 종류와 시제가 달라졌을 뿐이다. 3-4절은 서술이지만, 5-6절은 질문이며, 3-4절은 완료형이지만, 5-6절은 미완료형이다. 이것은 시인의 청중들을 향한 질문이 된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묻고 있다. 이러한 ‘질문’이 이어지는 본문(7절)에서 직접적인 ‘명령’으로 바뀐다.

(3) “쪼갬”에서 “전복(顛覆)”으로

출애굽 전통에서 “쪼갬”의 모티프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다를 쪼개고, 바위를 쪼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핵심어로 사용된다. 둘 다 물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그 물이 상징하는 ‘심상(心像)’은 정반대이다. 전자는 ‘혼돈의 물’을 상징하지만, 후자는 ‘생명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쪼갬”의 모티프가 “제2의 출애굽”을 묘사할 때는 ‘길’과 ‘강’을 ‘내심/놓으심’(נָסַח 동사)의 모티프로 바뀐다. ‘물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술된다.

“출애굽 전통”에 나타난 “물 공급”의 모티프는 다음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변형된다. 첫째는 <하야>(הִיָּה) 동사이다(사 35:7a).

뜨거운 사막이 <u>뚝</u> 되고, 메마른 땅이 <u>물샘</u> 이 (될 것이다).	וְהָיָה הַשָּׂדֶה לְאֵיִם וְצִמְאוֹן לְמַבְוְעֵי מַיִם
---	---

두 번째는 <심>(סִי) 동사이다(시 107:35).

그가 광야를 <u>언뚝</u> 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을 <u>물이 솟는 샘</u> 으로 (만드신다).	יְשֵׁם מְדִבְרָה לְאֵיִם-מַיִם וְאַרְצֵן צְרִיָּה לְמַצְאֵי מַיִם
--	--

세 번째는 <하파크>(הִפָּק) 동사이다(시 114:8).

<p>그는 바위를 연못으로 바꾸시는 분, 차돌 바위를 그의 물샘으로 (바꾸시는 분).</p>	<p>הַהִפְכִי הַצֹּרֵר אֲנִים־מַיִם חֶלְמַיִשׁ לְמַעְיְנוֹ מַיִם:</p>
---	--

위에서 보듯이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하파크> 동사를 통해서 표현된다. 하나님은 바위를 연못으로, 차돌 바위를 물샘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분사구문을 통해 표현된다. 분사구문은 찬양시의 특징적인 표현방식(hymnal participles)으로서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바꿈”의 주제를 표현하는 용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 본문이 시편 114편의 용례이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2절의 <하야> 동사가 8절에서 <하파크> 동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뒤집고 새로운 상황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바위(צוּר)를 연못(אֲנִים־מַיִם)으로, 차돌 바위(חֶלְמַיִשׁ)를 물샘(מַעְיְנוֹ מַיִם)으로 ‘뒤집어엮으시는’ 분이다.⁵¹ 문자 그대로 ‘전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러한 서술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건에 내포된 ‘역전’(逆轉)과 ‘전복’(顛覆)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⁵² 출애굽 전통에서 ‘물공급’의 모

51 8절을 평행법적으로 분석하면, 전반절의 바위가 후반절에서 차돌바위로, 연못이 물샘으로 대체되었다. 동의적이지만 후반절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상승과 절정의 흐름을 보여준다.

52 이러한 역전과 전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창조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창조이고, 창조는 구원이다”는 명제가 가능하다. 프린스루(G. T. M. Prinsloo)는 시편 114편 안에 두 가지 전통, 즉 출애굽 전통과 우주 창조 전통이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시편 114편은 구원과 창조의 모티프가 서로 얽혀있는 제2 이사야와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G. T. M. Prinsloo, “Tremble before the Lord: Myth and history in Psalm 114”, *Old Testament Essays* 11/2 (1998), 318.

티프를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제2출애굽’의 새로운 상황에 발전적으로 현재화시킨다. 이러한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를 통해 역전과 전복의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부각된다.

(4) “땀”에서 “흙”으로

시편 114편에서 7절의 진술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우선 어법이 명령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시편 114편의 흐름을 서술방식으로 분석하면, 1연(1-2절)과 2연(3-4절)은 서술이고, 3연(5-6절)은 질문이며, 4연(7-8절)은 명령이다.⁵³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면 7절은 정점에 해당한다. 정점에 이르러 시인은 땅에게 명령한다.

땅아, 주님 앞에서 <u>떨라</u> or <u>흙추라</u> .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מִלְפָּנֵי אֲדֹנָי חוּלֵי אָרֶז מִלְפָּנֵי אֱלֹהֵי יַעֲקֹב:
--	--

여기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특별한 대상이 언급된다. 그것은 ‘땅’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땅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히브리어 낱말 <에레츠>(אֶרֶ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구를 총괄하여) 세상, 나라, 영토, (농사짓는) 땅/토지, 지하세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⁵⁴ 특별히 하늘과 대조되는 공간으로서 지상 세계를 의미할 수 있다.⁵⁵ 시편 114편의 맥락에서는 앞에 등장한 바다와 강, 산과 언덕들을 포괄하면서도 하늘과 구별되는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지상의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땅’은 시편 113-115편의 맥

53 8절은 7절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두 절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54 W. Gesenius,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이정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64; HAL, 87-88; M. Ottosson, “אֶרֶץ”, *ThWAT I*, 421-436.
 55 M. Ottosson, “אֶרֶץ”, *ThWAT I*, 424-425.

락에서 의미가 있다. 시편 113편은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고 높은 곳에 앉으신 야훼를 찬양한다(113:4-5). 시편 115편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115:15-16)을 찬양한다. 특별히 시편 115편 16절에서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나 땅은 그가 사람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진술들과 함께 ‘땅’은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과는 달리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이며, 사람에게 맡겨진 곳이다. 그러한 공간인 ‘땅’이 명령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앞에 나온 바다와 요단, 산들과 언덕들처럼 땅도 의인화된다.⁵⁶ 이러한 의인화는 땅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피조물 전체를 포괄한다.⁵⁷ 부분으로 전체(pars pro toto)를 표현하는 제유법이다.⁵⁸ 그렇다면 땅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홀리〉(הָלִיל)는 지금까지 주로 ‘떨라’로 해석되었다. 이 동사의 어근을 〈힐〉(חָל) 동사로 파악하고, “아픔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전율하다”(사 13:8; 26:17 등) 또는 “무서움으로 인하여 떨다”(사 23:5; 렘 4:19 등)로 번역되었다.⁵⁹ 하지만 이 동사는 “춤추다, 운무를 추다”의 의미를 가진 〈홀〉(חָל)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삿 21:21;

56 땅의 의인화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 Hayes, “Where is the Lord? The extended great chain of being as a source domain for conceptual metaphor in the Egyptian Hallel, Psalms 113-118,” in: P. van Hecke and A. Labahn, *Metaphors in the Psalms* (Leuven: Peeters, 2010), 63-66.

57 프린스루(W. S. Prinsloo)는 7절의 “땅”이 자연의 모든 세력, 사실상 우주 전체를 요약한다고 설명한다. W. S. Prinsloo, “Psalm 114: it is Yahweh who transforms the rock into a fountain”, 170.

58 하경택,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 이해”, 56.

59 W. Gesenius,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이경의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229; HAL, 298; A. Baumann, “חָל”, *ThWAT II*, 898-902.

시 87:7 등).⁶⁰ “출애굽 전통”을 재활용하고 현재화하는 “제2의 출애굽”의 맥락을 고려하면 후자의 이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제2의 출애굽”의 모티프를 보여주는 이사야 44장 23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깊은 곳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라”고 명령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사야 49장 13절에서도 하늘과 땅과 산들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또한 참조, 사 55:12).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사건을 경험하는 대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명령하고 지시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7절의 <홀리>(לְהוֹלִי)는 “떨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 “춤추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명령은 홍해사건 이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추었던 “춤”을 생각나게 한다(출 15:20). 또한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미스바의 집으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했던 입다 딸의 “춤”을 생각나게 한다(삿 11:34). 이러한 여인들의 “춤”을 묘사하기 위해 두 곳 모두 <홀>(לָחַץ)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메홀라>(מְהוֹלָה)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춤추라”로 이해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춤”이라는 전통비평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 114편 안에서 고찰되는 등장인물들의 역동성(dynamic)의 관점에서 고찰해도 의미가 있다. 3절에서 바다와 요단은 출애굽의 도하사건에서 도망하고 물러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무서워 떨며 도망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4절에서 산들과 언덕들은 숫양과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서 “춤추는” 것이다. 법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처럼 말이다(위의 설명을 보라). 5-6절에서 3-4절과 동일한 내용을 질문으로 제기한 후

60 W. Gesenius,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219; HAL, 285.

이제 시인은 땅을 향하여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의 명령은 의미가 있다. “떨라”와 “춤추라” 사이에서 어느 하나의 이해방식만을 강요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온 땅에게 “잠잠하라”(합 2:20)나 “떨라”(시 96:9)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말이다. 오히려 이 명령은 시편 114편의 맥락에서 청중과 독자들에게 의미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의미의 모호성이 오히려 시인의 전략일 수 있다.⁶¹ 시인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인가 아니면 춤출 것인가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바위를 연못으로, 차돌 바위를 물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모습으로 기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5. 전통비평을 통해서 본 시편 114편의 신학적 함의

1)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

시편 114편은 출애굽 전통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서 ‘현재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애굽 전통의 주도어(Leitwort) 중 하나인 <아차> 동사의 사용에서, 홍해와 요단강 ‘도하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고 반석을 언급하는 ‘물공급’ 모티프의 사용에서 출애굽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편 114편은 “제2의 출애굽”을

61 라아베(Paul R. Raabe)는 히브리 시편을 어휘적, 음성학적, 문법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본문의 ‘모호성’(ambiguity)이 독자의 오해나 정보의 부족 또는 조악한 본문 전승의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인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다의성’(multivalence)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 Paul R. Raabe,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2 (1991), 213-227.

묘사할 때만 등장하는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출애굽 전통을 새롭게 적용하는 ‘현재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출애굽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성소’와 ‘영토’가 되었다는 언급에서 시인이 청중으로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새로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일시될 수 있는 제2성전기의 상황이다. 그리고 “도망”에서 “뛰넘”으로, “쪼갠”에서 “전복”으로 바뀌는 모티프의 변화에서도 전통의 수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현재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편 114편의 절정으로 나타나는 7절의 명령은 시편 114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마디로 압축되어 있다.

2) ‘성소’와 ‘영토’로서의 이스라엘

시편 114편은 출애굽 전통의 활용을 통해 단순히 수용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되게 하는 ‘현재화’를 보여준다. “출애굽”이라는 표현은 출발지인 이집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지만 출애굽은 “출”-애굽함(exodus)으로써 그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 광야를 거쳐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마쳐야, 즉 “입”-가나안(einodus)을 해야 그 의미가 완성된다. 그런데 시편 114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출애굽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이스라엘이 그의 “성소”와 “영토”가 되어야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출애굽의 의미가 ‘지리적 이동’이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일시적인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성소’와 ‘영토’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과 ‘존재’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항구적인 사건이 되어야 완성됨을 일깨운다.⁶²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62 시편 114편에 대한 해석에서 ‘성소’이며 야훼의 ‘현존 장소’로서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A. Siquans, “Wunder auf dem Weg durch die Wüste. Israels Verwandlung zum Ort der Gegenwart JHWHs in Ps 114”, *Protokolle zur Bibel* 21/2 (2016),

거주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비로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출 29:46)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된다.

3) ‘의인화’를 통한 메시지 극대화

은유(메타포)의 사용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법인 ‘의인화’는 메시지 전달에 매우 효과적인 표현법이다. ‘의인화’는 독자들에게 어떤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서술되는 사건에 ‘감정이입’하도록 만들어 메시지 전달의 파급력을 높인다. 시편 114편은 홍해와 요단강의 도하사건을 의인화를 통해 표현한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이 ‘뒤로 물러갔다’고 말한다(3절). 고대 중동의 “혼돈과의 투쟁” 모티프에 등장하는 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산과 언덕들의 “뛰놀” 모티프가 추가로 나타난다(4절). 이것은 본래의 “출애굽 전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요소이다. 하지만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며 그곳에 있는 나무들까지 동일한 반응을 보이려는 명령이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하는 본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사 55:12; 44:23; 49:13). 특별히 제2연(3-4절)의 서술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는 제3연(5-6절)은 청중과 독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의인화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사건에 청중과 독자가 관찰자로 남아있지 않고 사건의 ‘일원’으로 참여자가 되도록 이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은 청중과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한다.

4) ‘경외’에서 기쁨의 ‘춤사위’로

시편 114편의 구조분석은 다양할 수 있다.⁶³ 하지만 서술 방식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시편 114편의 의도와 신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편 114편은 서술(1-2연)-질문(3연)-명령(4연)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4연(7-8절)이 순서상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 시편 114편이 말하고자 바를 가장 분명하게 전달한다. 그것은 “땅아, 떨라/춤추라”는 명령이다. 여기에서 “땅”은 “하늘”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지상에 있는 피조물 전체에 대한 은유이자 의인화이다. <홀리>라는 명령에 대한 이해는 크게 “떨라”와 “춤추라”로 갈린다.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본문의 의미가 모호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본문의 모호성이 시편 저자의 전략이자 의도로 이해된다. 이것은 “떨라”와 “춤추라” 사이에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통해 청중이나 독자가 “떨”과 “춤춤” 사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 명령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까지도 연결된다.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피조물은 주되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두려워 “떨”과 “춤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 명령은 시편 114편의 흐름에서 분명한 지향점을 갖게 한다. 그것은 청중과 독자들이 “떨”의 삶에서 “춤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 경외가 기쁨의 ‘춤사위’로, 거룩의 경건이 ‘춤의 미학’으로 승화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슬픔을

63 하경택,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 이해: 시편 114편의 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49. 운율 상으로는 A-A'-B-B'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주체를 중심으로 하면 A-B-B'-C의 흐름으로 파악되고, 문장의 성격을 따라 분석하면 A-A'-B-C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춤으로 바꾸신”(시 30:11)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며,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야훼를 찬양하라”(시 150:6)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우리는 모두 전통의 아들이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에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며 적용하며 산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통과 혁신의 과정에서 전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현재화한 작업의 결과이다. 전통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용과 현재화의 과정에서 이어지고 발전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 전통을 이어가고 새롭게 하는 전승자로서 살아간다. 시편 114편은 전통의 수용과 현재화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결정체”인 동시에 이스라엘 정체성의 “뿌리 경험”이 되는 “출애굽” 전통을 단순하게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시인은 시편 114편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나 “입”가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성소”와 “영토”가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를 일깨운다. “뿔”에서 “춤”으로, 하나님 경외에서 기쁨의 ‘춤사위’로, 거룩의 경건이 ‘춤의 미학’으로 승화되게 한다. 시편 114편의 전통비평적 읽기를 마치며 깨닫게 된다. 바위를 연못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시편 114편의 진정한 전승자라는 사실을.

참고문헌

- 서재덕. “성전과 인간: 시편의 성전신학”. 『구약논단』 79 (2021), 97-130.
- 이동수. 『구약주석과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이효림.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와 타국인의 제사 참여에 관한 전통사적 연구”. 『구약논단』 89 (2023), 249-285.
- 주용-무라우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개정본). 김정우 옮김. 서울: 기훈, 2022.
- 하경택. “문학으로서의 구약성서 이해: 시편 114편의 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7/2 (2025. 6), 54-57.
- Anderson, B. W. 『구약성서 탐구』. 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17.
- Bauer, U. F. W. “Eine literarische Analyse von Psalm CXIV”, *VT* 51/3 (2001), 289-311.
- Brown, William P. *Seeing the Psalms: A Theology of Metapho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Dreytza, M. 외 공저.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 Dobbs-Allsopp, F. W. *On Biblical Poe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Fuad, Chelcent. “Exodus Reimagined: Psalm 114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Exodus Tradition”.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6/2 (Oct 2022), 222-235.
- Gesenius, W.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이정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Gillingham, S. “The Reception of the Exodus Tradition in the Psalter”. Kowalski, B. and Docherty, S. E. (ed.) *The Reception of Exodus Motifs in Jewish and Christian Literature: “Let My People Go!”*. Leiden: Brill, 2022, 36-55.
- Hayes, E. “Where is the Lord? The extended great chain of being as a source domain for conceptual metaphor in the Egyptian Hallel, Psalms 113-118”. In: Hecke, P. van and Labahn, A. *Metaphors in the Psalms*. Leuven: Peeters, 2010, 63-66.
- Herrmann, S. “Exodusmotiv I”. *TRE X* (1982), 732-733.
- Jona, S. “성경의 평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서 중심축 유형”. 『구약논단』 40 (2011), 166-184.
- Knight, D. A. “Tradition History”. *ABD* Vol 6 (1992), 633-638.
- Kraus, H.-J. *Psalmen 60-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9.
- Kreuzer, S.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Lubsczyk, H. *Der Auszug Israels aus Ägypten. Seine theologische Bedeutung in prophetischer und priesterlicher Überlieferung*. Leipzig: St. Benno-Verlag, 1963.
- Noth, M. 『오경의 전승사』. 원진희 역. 서울: 한우리, 2004.
- Ottosson, M. “𐤀𐤍𐤏”. *ThWAT* I, 421-436.
- Preuß, H. D. “𐤍𐤏”. *ThWAT* III, 795-822.
- Prinsloo, G. T. M. “Tremble before the Lord: Myth and history in Psalm 114”. *Old Testament Essays* 11/2 (1998), 306-325.
- Prinsloo, W. S. “Psalm 114: it is Yahweh who transforms the rock into a fountain”.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XVIII (1992), 163-176.
- Raabe, Paul R.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2 (1991), 213-227.
- Seybold, K. *Die Psalmen*. Tübingen: J. C. B. Mohr, 1996.
- Steck, O. H.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and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9.
- Wiener, S. “God vs the Sea: Lessons of Psalms and the Midrash”. *Jewish Bible Quarterly* 43/1 (2015), 22-28.
- Wijinaards, J. “aycwh and hl[h A twofold Approach to the Exodus”. *VT* 15 (1965), 91-102.
- Zenger, E. “Ein Beispiel exegetischer Methoden aus dem Alten Testament”. In: Schreiner, J. (Hg.). *Einführung in die Methoden der biblischen Exegese*. Würzburg: Echter Verlag, 1971.
- Zenger, E. “Exodusüberlieferung”. *RGG*4, 1825-1827.
- Zenger, E.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Verlag, 2008.

검색어

전통비평, 시편 114편, 출애굽 전통, 수용과 현재화, 땀과 찰흙

[ABSTRACT]

From “Trembling” to “Dancing”: A Tradition-Critical Reading of Psalm 114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offers an interpretation of Psalm 114 through the lens of tradition criticism. Although brief, Psalm 114 exhibits remarkable literary artistry. Rooted in the “Exodus” tradition, it serves as an exemplary case of how a biblical text appropriates and re-presents inherited tradition. Unlike transmission criticism, which focuses on tracing the process of transmission (*traditio*), tradition criticism is primarily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content transmitted (*traditum*) within a given text. Broadly speaking, tradition criticism distinguishes between two key elements: traditions and motifs. In the Old Testament, the Exodus tradition encompasses the entire movement from the departure from Egypt (*exodus*) to the entry into Canaan (*eisodus*). Within Psalm 114, this tradition is expressed through three motifs: departure from Egypt, crossing of waters, and provision of water. The psalmist does not merely preserve or recall the Exodus tradition; rather, he actively re-appropriates it, reshaping it into a message that addresses the needs of a new generation. This dynamic is aptly described by the terms “reception” and “actualization” of tradition. Psalm 114 portrays the outcome of the Exodus in terms of “sanctuary” and “territory,” and it highlights striking transformations: from fleeing to leaping, from splitting to overturning, and from trembling to dancing.

www.kci.go.kr

These features reveal four significant theological implications:

- (1) the reception and actualization of tradition;
- (2) the portrayal of Israel as sanctuary and territory;
- (3) the intensification of the message through personification; and
- (4) the transformation from awe to a dance of joy.

Psalm 114 ultimately invites its readers to become children of tradition — those who both receive and actualize the Exodus tradition in their own time.

key words

tradition criticism, Psalm 114, Exodus tradition, reception and actualization, trembling and dancing

투고일: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2025년 08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8월 14일

www.kci.go.kr